



23일 고령 지산동고분군 일원에서 열린 '2024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잊혀진 대가야의 영광 재조명 '세계유산축전' 축포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행사
개막식 각계각층 500여명 성황
내달 6일까지 지산동고분군서
10개 가치 향유 프로그램 운영
문화유산야행 등 연계행사 풍성
축전 기념품 교환 특별이벤트도

잊혀진 우리역사 '가야'를 증명하는 유산인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2024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의 개막식이 23일 대가야 왕도 고령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24 세계유산축전-가야고분군'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OUV) 향유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국가적 행사로 국가유산청과 경북도, 고령군이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흥원과 (사)고령관광협회의 주관한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과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 이병환 성주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0여명이 참여해 세계유산축전의 개막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의 시작은 대가야 최대고분이자 금림왕릉으로 알려진 지산동 5호분 발굴조사의 고유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는데 이철우 도지사, 이남철 고령군수,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장, 이철호 군의회 의장, 노성환 도의회 의원이 제관을 맡아 발굴조사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례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가야연맹체의 화합과 공존을 상징하는 줄방기 퍼포먼스와 '아름다운 나라'의 가수 신민희가 축하공연을 이어갔다.

이번 행사는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함축한 '잊혀진 가야문명, 가야고분군으로 기억되다'라는 주제

로 오는 10월 6일까지(오전 10시~오후 6시)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개별 프로그램은 총 10개로 가치 향유 프로그램은 △금림왕릉 발굴조사 고유제 △등재 1주년 기념식 △빛의 대가야 프로젝트 △가야금 대병창 △지산동에 빠지다로 구성, 가치 확산 프로그램은 △나의 지산동 고분군 답사 △고령으로 가얏! 토크콘서트 △대가야의 향연 △대가야의 미스터리 (무덤의 비밀) △내가 쓰는 대가야사

(野史)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축전기간 중 대가야 문화 예술제와 문화유산야행 등 다양한 연계행사가 개최되며 문화유산야행 기간(10월 3일~5일) 중에는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또 축전기간 중 고령지역 상가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종합안내소에서 축전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특별이벤트도 마련된다. 김일호기자hoyai515@daum.net

성주, 균형발전 초석 '광역교통망 구축' 일사천리

남부내륙철도·동서3축 고속도로 등 구축 순항
지역·건설경기, SOC 인프라 제고 '두 마리 토끼'

성주군은 철도, 고속도로 등 SOC사업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순리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6조6460억원) △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대구 구간 건설사업(9542억원) △선남-다사간 국도30호선 6차로 확장사업(1395억원) △지방도903호선(가천-중산 간) 건설사업(495억원) △지방도905호선(성주-초전) 확장사업(2100억원) △지방도905호선(동락-나정 간) 건설사업(290억원) 등 인근 대도시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산·공산물 물류비 절감, 관광객 유치, 기업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립 추진(서부권)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성주-함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잇는 노선으로 5만 성주군민과 20만 출향민들의 염원으로 철도기본계획에 '성주역'이 반영돼 '성주대계 100년' 성장동력의 기틀이 마련됐다. 성주에 당초 계획된 신호장이 일반역으로 전환됨에 따른 성주역사 건립비 지방비 부담분 147억원에 대해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립으로 성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40분, 거제까지 55분 만에 고속열차로 이동할 수 있으

며 서부권 경제활성화 및 영남의 중심으로 제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대구구간 사업추진(동부권) 포항과 새만금을 연결하는 동서3축 고속도로 중 미개통 구간인 대구-성주-무주 노선 중 대구-성주 18.8km 구간을 분리해 건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북 민생토론회에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를 직접 언급하며 경북과 전국에 따라 사업추진에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주군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 선남-다사 간 국도30호선 6차로 확

장사업 추진(동부권) 대구와 성주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로 지속적인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상습적인 정체 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4차로인 성주(선남)-대구(다사) 구간 국도30호선을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설계 중에 있다. 오는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해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 지방도903호선(가천-중산 간) 건설사업 추진(북부권) '조선팔경' 가야산을 중심으로 가야산 순환도로 약 100km가량의 도로 중 현재 시행 중인 가천-중산 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가야산 일대를 1시간 40여분 만에 완주가 가능하다. 현재 공정을 70%로 공사 진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사가 완공되는 오는 2025년에는 무

주, 전주 등 전라도에서 가야산을 찾게되는 관광객의 교통편의성이 좋아져 많은 관광객이 가야산 만발상, 칠불봉, 가야산역사산화공원, 야생화식물원 등 관광명소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도 905호선(성주-김천)4차로 건설사업 추진(북부권) 2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오랜 주민 숙원사업이 마침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210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돼 현재 도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오는 2025년 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 후 보상 및 공사발주 예정으로 도로확장을 통해 지역 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구미 산업단지 및 성주 일반산업단지, 월항 농공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 연계로 물류비용을 절감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발전엔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도905호선(웅정-나정) 도로건설사업 추진(남부권)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성주IC와 화원IC간 연결노선으로 전체구간 중 3.18구간이 미개설 구간으로 원활한 물류이동 및 지역주민 통행 불편 해소에 그 목적이 있다. 이번 공사는 L=3.18km, 왕복2차로 규모로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보상 중이며 오는 2025년 공사발주 예정이다. 지역 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환 군수는 "국토부, 기재부, 경북도청 등 여러 기관의 유대관계를 통해 총출발 도로망 구축을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지역경제 및 건설경기 활성화와 SOC 인프라 구축사업을 순조로이 진행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호기자hoyai515@daum.net



도심 속 밤나들이로 더욱 특별한,

금리단길 불금예찬

경주중심상가 원효로 105번길 일원
2024.08.23~09.29 (총13회)
매주 금·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금리단길에서 맛있는 먹거리와 쇼핑을 즐겨보세요
미니콘서트·시원한 맥주·먹거리·플리마켓

[비] 경주중심상가권리대상사업추진단

한,尹 독대 승부수... 여야의정협 윤곽 잡힐까

대통령실 "상황 보겠다"며 고심
輿는 성사 가능성 더 높게 전망
불발 시 한 대표 더 코너로 몰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앞두고 독대 요청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독대가 성사되면 난항을 겪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당정관계 등 직면한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독대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한 대표가 더 코너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고위 관계자는 전날(22일) "한 대표가 24일 만찬 직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독대를 제안한 이유는 만찬에 다수가 참석하는 만큼 좀 더 깊은 논의를 위해선 독대가 필요하단 취지로 풀이된다. 만찬에는 당대표뿐 아니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주요 당직자에 더해 대통령실에서는 3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제는 두 사람의 독대 성사 여부로 당정이 신경전을 주고받는 모습이 됐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수용하는 여부에 대해 "상황을 좀 보겠다"며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 측이 체코 방문 기간 독대를 요청하며 사실상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모습이 된 것과 관련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도 대통령실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하는 일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 자체가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니냐고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한 것이 시간 끌 일이나"며 "(대통령실에서) 즉답을 피하는 자체가 지금의 (당정관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여전히 독대 가능성이 열려있는 모습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만찬 직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독대 여부는 당일 결정될 수도 있다. 당에서도 독대 성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예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독대 성사 가능성에 대해

"그래도 한 70%는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한 대표 입장에선 이번 독대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낮아진 당 지지율과 본인이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자체가 난관에 부딪힌 만큼 이를 계기로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한 대표와 정부는 시각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독대가 성사돼도 만일 큰 성과가 없거나 독대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당정관계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의정갈등 해결도 난관에 부딪히며 한 대표는 더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태 신임 칠곡군 부군수 부임 "차질 없는 군정 위해 역량 총발휘"

직위와 격의 없는 소통 앞장
도시·건설 전문가로 정평 나



35대 신임 칠곡 부군수로 박종태(55·사진) 경북도 도로철도과장이 부임했다.

박종태 신임 부군수는 23일 취임식을 생각하고 임용장을 받은 후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다.

박 부군수는 봉화군에서 태어나 지난 1991년 공채로 공직에 입문, 봉화군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 경북도로로 전임해 김천시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균형개발사업단장,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장, 하천과장, 도로철도과장 등의 주요 보직을 거친 후 이달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국가 발전이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06년 대통령 표창에 이어 2013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박 부군수는 직원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시, 건설 분야에 최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대형 SOC 사업에 대한 안목과 추진력이 높아 칠곡군의 주요 역점사업과 개발사업 등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박종태 부군수는 "부군수로써 칠곡군에 첫 부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김재욱 군수의 군정 철학을 바탕으로 민선 8기 군정 비전과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홍달 기자 song031700@naver.com

장기복무 희망자 無...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 유명무실

임종득 의원, 운영목적 같은 학교와
순차적 통합으로 예산 효율화 강조
관련 사안 세밀한 점검 필요성 지적



군 복무기간 동안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를 통해 임관한 장교 중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통해 선발된 우수 이공계 재학생들은 최대 2년간 대학교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250만원의 전문역량개발비를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8주 동안 장교 기본소양 배양 교육을 이수한 후 임관 후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한다. 과기부 예산으로 약 60억원 이상에 달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한 장교들 중 장기복무를 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석사 트랙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예정"이라며 "전역자들은 기업이나 석·박사 학위취득을 위해 장기복무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 외에도 국방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의 중

장기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2026년도까지 국방첨단과학사관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사관생도들은 임관 후 6년간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며 국방과학 R&D활동에 중시할 예정이다.

임종득 의원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수 이공계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과학기술사관전문제도와 국방첨단과학사관학교는 제도운영 목적과 기능이 동일하므로 성과를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통합시켜 예산 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젊은 이공계 출신 장교들이 장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역량개발 환경이 잘 조성돼 있는지, 군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을 연계해 복무 중에 학위과정을 병행할 수 있는지, 장기 복무를 위한 인사관리 제도가 정비돼 있는지 등 관련 사안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

울릉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 7명 위촉

울릉군의회는 23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분야별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회는 '울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의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다. 조례에 따라 3년의 임기 동안 의원 대상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식 의장은 "조언을 바탕으로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모범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명 기자 gst3000@naver.com

도교육위원장, 바이오마이스터고 격려 방문

박재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19일 최근 경북 직업계고 중 4년 연속 취업률 1위를 자랑하는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영천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날 영천교육청에서 김희수 교육장, 배은오 장학사, 경북교육청에서 창의인재과 박기환 장학관, 이정우 장학사 등이 함께 했다.

박재야 교육위원장은 이날 학교 현황을 둘러보고 실습 중인 학생들을 격

려하며 "바이오 분야는 앞으로 더욱 전망되는 분야이며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에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자랑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내 출자·출연기관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에도 지역 인재가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경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

도의회, 하반기 슬로건 발표
도민·도정의 가교 역할 포부

경북도의회는 제12대 하반기 의정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에 발맞춰 오직 도

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제12대 하반기 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를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제12대 하반기 의회를 상징하는 새로운 슬로건은 앞으로 모든 도민을 주

인으로 섬기며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 없이 도민 전체의 목소리가 도정에 빠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회의 포부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경북도의 전 지역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겠다는 경북도의회는 굳은 결의도 담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슬로건에 담긴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경상투데이 캠페인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날봄

<p>조기퇴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근로자 임금 보전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p>학교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p>심야 돌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봄 서비스 24시 어린이집 아픈 아이 긴급 돌봄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	---

▶ 온종일 완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상투데이운영위원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 '투자하기 좋은 경북' 밑그림

도, 22개 시군과 공무원 간담회 KOTRA 센터장 등 전문가 한자리 신공항 맞춤 분야별 전략 논의

경북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투자유치방안 공유를 위해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열었다.

도는 23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김창희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장을 비롯해 경북도와 시·군의 투자유치 담당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북도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투자유치, 공항, 산업단지 부문의 통합 조직개편 후 첫 시·군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간



담회로 시·군별 투자유치 전략발표, 주요 투자유치 현안과 예로사항 공유,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토론, 외국인 투자를 위한 현금지원제도 및 대규모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로 진행됐다.

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지도 변화를 고려한 투자 전략과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인센티브 제도,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맞는 투자 전략 방안을 설명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지원제도를 안내하며 경북에 투자할 유망한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

김창희 KOTRA 센터장은 경북의 외국인 투자 강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화에 맞는 외국 투자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방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특강한 최남곤 컨서스자산운용 상무는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환경 속에서 투자유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간 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투자 인센티브로는 기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투자 환경 개선과 기업에 대한 친화적 정책 조성을 당부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부터 기업 애로사항 해결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한 투자유치 전략을 통해 시·군에서는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매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교육청, 전국 무대로 '경북 위상' 높였다

지역 학생들, 장애 학생 e페스티벌 17개 종목 참가 14명 수상 '영예'

경북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4 전국 장애 학생 e페스티벌'에서 경북 지역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넷마블문화재단과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경북 대표로 출전한 22명의 학생은 대회 17개 종목(정보경진대회 10명, e스포츠대회 12명)에 출전해 최우수 6명과 우수 4명, 장려 2명, 페어플레이 2명 등 총 14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10개 종목에 출전한 정보경진대회에서는 아래한글과 스마트검색, 로봇코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파워포인트 부문에서는 장려상을 받았다.

7개 종목에 출전한 e스포츠대회에서

는 풀가이즈와 클래시로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팀파이트텍틱스와 FC온라인 부문에서는 우수상을 스위치 불링 부문에서 장려상, 닌텐도스위치배구 부문에서는 페어플레이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팀을 이뤄 출전한 클래시로얌과 팀파이트텍틱스, FC온라인 종목에서 거둔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장애인식 개선과 협력·공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한편 최우수상을 받은 학생과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은 학생에는 국립특수교육원장상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이 주어진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제주행 포항해녀들, 해녀문화 브랜드화·콘텐츠 발굴 '힘'

경북문화관광공, 교류 행사 성료 전국 해녀 대표 퍼레이드 등 '눈길' 동해안 연계한 테마 관광 활성화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해녀의 교류와 기록을 통해 해녀문화 보존에 기여하고 포항의 해녀문화 브랜드화와 동해안 신규 해양문화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포항-제주 해녀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9월 20일)와 제7회 해녀의 날 기념식(9월 21일), 제17회 제주해녀축제(9월 21일~22일)에 맞춰 기획한 이 교류 행사에는 포항지역 해녀 20여명이

참여했다. 보통 '해녀' 하면 제주도를 떠올리지만 지난해 기준, 제주도(2825명)에 이어 전국에서 해녀가 두 번째로 많은 곳이 경북(1043명)이다.

경북도 내 해녀 보유 수 1위는 포항(767명)으로 비중이 제일 크다. 이번 포항해녀탐방단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해녀 대표들과 함께 제주 해녀축제의 서막을 여는 거리 퍼레이드에 참여해 제주도민과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외 탐방단은 해녀의 날 기념식과 함께 해녀공연, 전국해녀협회 출범 퍼포먼스 등 행사를 참관하고 제주해녀 박물관도 관람했다. 그곳에서 제주해녀의 역사와 생활모습, 제주해녀 항일

운동 등을 살펴보고 공감대를 넓혔다.

포항 해녀들은 제주 해녀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녀문화 보존과 전승, 해녀들의 지속적인 교류, 해녀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제주 출신 출가해녀로 20세에 포항으로 와 정착한 구룡포읍 조규석 해녀(85)는 "오늘 제주해녀축제에서 소싯적 고향 친구를 만나 반가워 눈물이 났다"며 "이번에 안 오면 언제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해녀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즐거웠고 '70년 물질'의 보상을 받는 기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남일 사장은 "해녀는 가족 생계를 이끈 어업인이며 동료 해녀들과 협동

을 통해 이룬 어촌공동체의 근간이자 해양 생태환경 정화에 기여하는 바다의 어머니"라며 "해녀문화를 보존하는 동시에 해녀들과 함께 해양관광자원을 발굴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주에서 울진까지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과 동해선 철도 개통, 해녀유산을 연계해 경북 동해안 해양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제주도가 지난 2022년에 체결한 '해양인문 교류 및 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3번째 이어오고 있다. 5월에는 울릉도에서 경북-제주 해녀 교류행사를 진행한바 있다.

서규규 기자seoul411@hanmail.net

관광 최적지 경북, 토론토 현지 취향저격

도-경북문화관광공, 마케팅 활동

경북도와 경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4 한국문화관광대전'을 통해 경북관광 홍보와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2024-2025년 한-캐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한국과 캐나다 간 신규 항공노선 취항 및 증편과 함께 캐나다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관광공사(KTO)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경북도는 한국문화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가했다.

경북 홍보부스는 토론토 시청 앞 광장에 'The Heartbeat of Korea: Gyeongsangbuk-do'라는 주제로 설치됐다. 부스에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 전통과 자연 등 권역별로 경북관광을 소개하는 관광콘텐츠를 전시했고 이틀간 5만명 이상의 토론토 시민이 방문할 정도로 큰 성공을 이뤘다. 특히 한복을 입은 봉사자들이 경북나드리 SNS 팔로우 이벤

트에 참가하는 방문객들에게 경북 명소가 새겨진 손거울과 책갈피를 제공하며 인기 관광지를 알렸고 외래관광객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한편 첫날인 지난 20일에 현지 대형 여행사와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도,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대한항공이 한국관광설명회를 겸한 트래블 마트를 개최했다. 도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경북이 '2025 APEC 개최지'로 선정될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도시임을 설명했다.

설명회는 듣는 캐나다 여행사에서도 인천공항에서의 이동 거리, 숙박 시설, 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1대 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 일부 여행사는 템플스테이, 유네스코 역사 마을 체험 등의 관광상품 판매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풍부한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리며 경북도가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박영민 영풍 대표 구속기소... 중처법 첫 사례

경북 음주운전 교통사고·사망자 수 대폭↓

안전조치 미흡 조사로 드러나 원청인 영풍 법인 불구속기소 영풍 제련소장 B씨 구속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직업성 질병에 걸리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원청인 영풍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풍 제련소장 B씨를 구속기소하고 영풍 법인 안전관리이사 C씨 등 임직원 8명과 하청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아르신 가스에 중독돼 치료받다 숨졌으며 3명은 가스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에 이르게 됐다.
무색인 아르신은 비소와 수소가 결합해 생기는 화학물질로 노출되면 혈액의 기능을 방해하고 간과 신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고 조사 결과 영풍석포제련소의

탱크(비소) 내 유해 물질 밀폐설비나 작업 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대구고용노동청은 영풍 법인과 제련소, 하청 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8월 검찰은 박이사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제련소는

지난 2008년부터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비소 중독 사고 등 동종 산업재해가 지속해서 일어났지만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이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대표이사로 취임한 그는 지난 2022년 아연정제 공정에서 노동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고를 보고 받았고 외부 기관 위탁점검 때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음주 사고 25%·사망자 40% 감소
하루 평균 음주운전 14건 적발돼
경북경찰청, 연말까지 강력 단속

경북경찰청은 최근 3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난 2021년 912건에서 2023년 707건으로 22% 감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고 사망자 모두 대폭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말까지 도내에서 37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의 꾸준한 단속에도 경북지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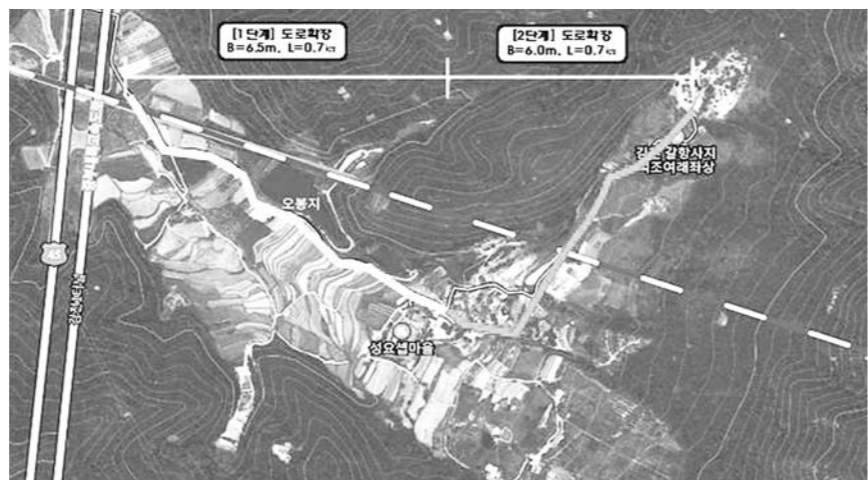


서는 하루에 평균 1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315명이다.
교통과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의영 기자p04140@naver.com

김천시, 국보 99호 갈항사지 삼층석탑 이전 준비 ‘착착’

사적지 지정 기반 조성 ‘본격화’ 올해 실시설계·보상 절차 돌입

김천시는 23일 전 시민의 염원이 담긴 국보 제99호 갈항사지 삼층석탑 김천 이전을 위해 사적지 지정 및 방문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갈항사 방문을 위해서는 오봉2리 갈항마을에서 협소한 농도를 이용해 통행하고 있어 통행 불편과 안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적지 지정을 위한 선행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김천시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오봉2리 갈항마을 진입로 확장에 올해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6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로 확장공사(길이=0.7km, B=6.5m)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오봉2리 갈항마을에서 갈항사

까지 도로 확장을 위해 올해 말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진입로 확장(길이=0.7km, B=6m)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갈항사지 삼층석탑 김천 이전을 위해 사적지 지정 등 많은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적기에 완료해 이전 여건 마련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충섭 시장은 “갈항사 진입로 확장 등 기반 시설 정비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국보 제99호 갈항사지 삼층석탑 김천 이전과 방문객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가을 산행 주의점은?

벌 쏘임·뱀 물림 사고 주의 당부 응급 조치 후 의료소 찾아 치료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벌 쏘임·뱀 물림 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경주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벌 쏘임·뱀 물림 사고는 탐방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행 중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 향이 진한 화장품 등은 자제하고 밝은 색상의 긴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침을 제거해야 하며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물로 씻은 뒤 냉찜

질로 독 흡수를 지연시키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뱀을 목격했을 경우 절대 뱀을 잡으려 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돌아가며 수풀이 우거진 지역은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산행 시 강한 발걸음 소리를 내거나 등산스틱으로 강하게 짚는 진동을 내면 뱀을 쫓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뱀에 물렸을 경우 물린 장소에서 즉시 떨어진 뒤 119에 신고하고 물린 부위에 액세서리를 제거하며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한다.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며 물린 부위에서 2-3cm 윗부분에 도통하게 접은 거즈(휴지 등)를 대고 봉대나 손수건으로 감는다.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거나 약물을 도포해서는 안 된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성주군 초전면 체육회 군민체육전 선수단 발대 체육회장 “물심양면 지원할 것”

성주군 초전면 체육회는 지난 20일 초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원, 선수단 등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52회 성주군민체육대회 초전면 선수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군민체육대회 준비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체육회 임원과 선수단간의 상견례 자리가 있었다.
이진택 체육회장은 성공적인 성주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나서준 체육회 임원들과 선수단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준비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선수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곽오창 회장은 “성주군민체육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다”라고 강조하며 “군민화합을 위해 마련한 행사이니 만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문경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영유아·어린이·임신부 대상

문경시는 지난 20일부터 어린이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생애 첫 접종을 하는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는 이달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9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는 오는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회 접종한다.
또한 임신부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인

플루엔자 접종이 가능하며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산모 수첩, 임신 확인서 등)를 가지고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다.
문경시는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이 각각 14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도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인왕동 하수관로 정비로 정주여건 개선 '박차' 불국사농협, 지역 조합원 영농 지원 '최선'

시, 내달 1차 공사 시작... 내년 5월 일부 구간 우선 준공 2026년까지 약 2km 구간 하수관로·배수 설비 104개 설치

경주시가 인왕동 선덕여고 주변의 하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왕동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취락지구와 문화유적 보호구역이 중첩돼 있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관광 자원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경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약 2km 구간의 하수관로와 104개의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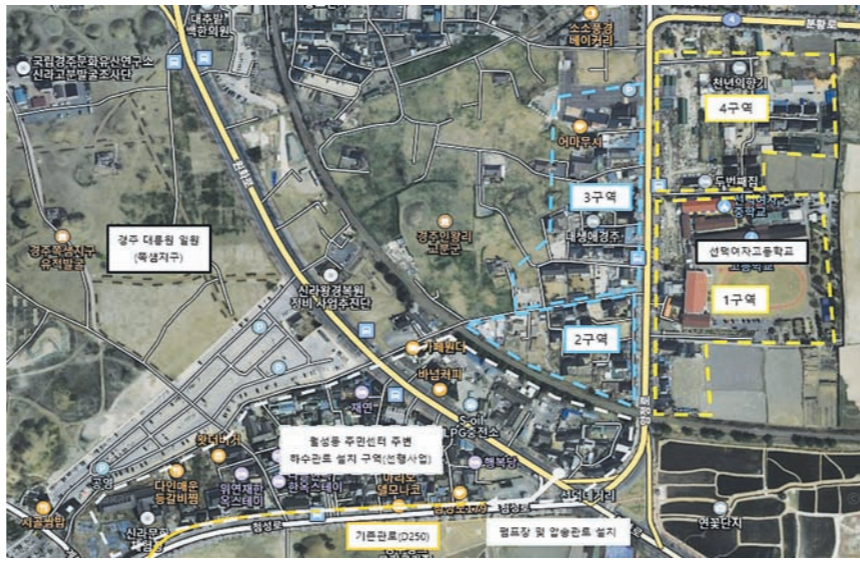
경주시는 지난해 10월 실시 설계를 완료했으며 올해 8월에는 문화유적 특

별보존지구 관련 협의를 마쳤다.

사업비 4억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1차 공사에 착수해 내년 5월까지 750m의 오수관로와 30곳의 배수 설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이후 추가 구역에 대한 공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이 지역의 하수 처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하수관로 보급 사업은 인왕동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



선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인프라의 질적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매해 벼 육묘 7만여판 생산 공급 배추모종 2천판 무상공급 나서

경주 불국사농협이 조합원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벼 육묘와 배추 모종을 무상공급하는 등 조합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3일 불국사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김장용 배추모종 2000판을 조합원들에게 1판씩 무상 공급했다.

불국사농협은 지난 2020년 4월 벼 육묘장을 준공해 농민들이 벼농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마다

벼 육묘 7만여판을 생산 공급해 왔다.

또 지난해부터 모내기 끝나는 8월 이후 육묘장에서 김장용 배추모종 2000여판을 생산해 조합원들에게 1판씩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분은 원가공급해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했다.

이러한 사업은 벼 육묘장의 활용하는 사업으로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영농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김영도 조합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농가의 경영비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교육청Wee센터, 교원 역량강화 연수

지역 전문상담(교)사 60명 대상 초청 특강·모래놀이 치료 진행

경주교육지원청Wee센터는 23일부터 경주교육지원청Wee센터 다목적실에서 지역 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60명을 대상으로 마음 드레싱을 통한 마음챙김 및 계슈탈트 모래놀이 치료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는 학교급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유은호 마치 79상담교육센터 센터장이 강의하는 '마음 드레싱을 통한 마음챙김' 프로그램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자신에 대해 알아차리고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소진된 기운을 북돋고 스트레스 및 우울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재은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강의하는 '계슈탈트 모래놀이 치료'는 계슈탈트 상담이론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해당 강의는 '지금 여기에서 모래를 만지고 느끼고 소품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치유와 통합을 경험'하는 것으로 시연 및 체험으로 구성돼 교원의 상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연수에 참석한 중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학부모 및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소진된 자신을 알아차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권대훈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들의 소진된 기운을 분출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위기학생 상담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경주시립도서관 '숲 속 책인 축제' 28일 연다

오전 10시 도서관·황성공원 일대 여행·모험 관련 서적 전시 등 선보

경주시립도서관은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오는 28일 '숲 속 책인(冊人)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힐링의 숲, 책 속에서 피어나'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립도서관 앞마당과 황성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시립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 경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역 독립책방이 참가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 행사를 열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에서 선정한

여행과 모험에 관한 책 전시와 경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지역 독립책방이 참여하는 '교묘부 기억다방', '독립책방과의 만남'도 선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를 참고하거나 시립도서관(054-779-8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책인 축제를 통해 경주시민들이 책과 도서관에 친밀감을 느끼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주시민이 참여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hg0311@naver.com

市, 이통장 화합한마당 성료... 2025 APEC 성공개최 '한뜻'

700여명 참석, 모범 이통장 시상 APEC 성공 기원 퍼포먼스 펼쳐

경주시는 시민 봉사에 앞장서 오고 있는 이·통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호 간 화합을 다지고자 23일 오전 덕계 이호텔에서 '이통장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낙영 시장, 이동협 시의장, 도·시의원을 비롯해 임태봉 경북이통장연합회장, 도내 시·군 이통장연합회장, 지역 이·통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색소폰 연주와 한국국제통상 마이스터고 치어리딩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의 시민 역할 교육, 모범 이·통



장 유공자 표창,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의를 맡은 남태석 중부대학교 교수는 지역을 대표하는 이·통장 모두가 경주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을 강조했다.
이동건 경주시 이통장연합회장은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이·통장이라는 직분에서 잠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에 지역 665명의 이통장들도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행정과 주민 간 가교 역할을 맡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이·통장님께 감사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이·통장님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승덕전·승혜전·승신전' 추계 향사 봉행

승조덕업 정신 있는 시간 가져

경주 3전인 승덕전, 승혜전, 승신전의 추계 향사가 지난 22일 일제히 봉행됐다. 3전 향사는 봄에는 전(殿) 향사가, 가을에는릉(陵) 향사가 이뤄진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던 후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자 추계향사에 참석해 승조덕업의 정신을 이어가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박혁거세 왕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승덕전에서는 500여명의 후손과 유림

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왕릉에서 제향을 했다.

신라 최초의 김씨 왕인 13대 미추왕,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30대 문무왕, 신라의 마지막 왕인 56대 경순왕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승혜전에서는 미추왕릉에서 300여명의 후손과 유림이 경건하게 제향을 지냈다.

신라 4대 석탈해왕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승신전에서는 남심숙 경주시 문화관광국장이 초헌관직을 수행한 가운데 석탈해왕릉에서 30여명의 후손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하게 향사가 봉행됐다.
주낙영 시장은 "오늘은 옛 조상의 일과 위업을 기리는 뜻깊은 날로 시민들

을 비롯한 많은 분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향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5대 주정차금지구역 자세히 알아보기

- ◆ 소화전 5m 이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정지돼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로 간주(화재 시 소방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음). **과태료 8~9만원**
-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지 못해 도로 중간에서 승객들이 승·하차 시 각종 사고 위험). **과태료 4~5만원**
- ◆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상태로 멈춰 있는 차량도 불법주정차 차량(횡단보도가 가로막혀 보행자가 불가피하게 차도 이용 등 위험 초래). **과태료 4~5만원**

-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에 멈춰 있는 차량은 불법주정차 신고 대상(원활한 차량 통행, 운전자 시야 방해). **과태료 4~5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모든 차량이 불법주정차 대상!(주의) **과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집중 단속 시)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하는 경우 각각 1만원씩 추가**
※소화전(5m 이내)과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른 주정차 금지구역보다 **과태료 2~3배↑**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한 경주 만들기 동참합니다.

시설관리공, 공공기관발전 대통령 표창 '쾌거' '의흥 어슬렁길 골목축제' 성황리 마무리

구조개혁·기술혁신 다분야 호평 시민행복 상생경영 실천 등 노력 과제 이행성 대외적 인정 받아 이사장 "지역 성장 이바지할 것"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3일 2024년 지방공공기관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으로 기관별 우수한 성과 창출 및 지방공공기관 발전 기여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022~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가' 등급 획득) △정부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 및 구조개혁 선도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제공 △안전 최우선 경영 강화 △시민행복을 위한 상생경영 실천 등 다방면에서 노력해 이번 표창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공단은 자원순환 우수사례 국무총리 표창,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대구시 적극

행정 시정혁신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등으로 국정과제 이행성과 혁신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공단은 "2024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경영 우수사례, 주요성과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문기봉 이사장은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임직원이 시민들을 위해 헌업에서 묵묵히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환경 및 시설 분야를 선도하고 지역 성장 발전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골목상권 상인이 사업 직접 기획 전통시장 연계한 장터 운영 '호응'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의흥상가번영회가 함께한 흥(興)미(味)로운 골목이야기 '2024 의흥 어슬렁길 골목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의흥면 읍내길 일원(의흥향교-의흥전통시장)에서 열린 어슬렁길 골목축제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북적였다.

특히 의흥향교에서 진행된 선비문화 체험과 어린이 과거시험은 참여자 사전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고 의흥전통시장과 연계한 '데트로 먹거리 장터' 운영으로 의흥의 대표 먹거리인 닭도 불고기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특히 의흥전통시장 내 공연 무대를 마련해 퓨전 국악 그룹 이어랑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 가수 공연과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즉석 노래방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즉석 노래방으로 축제의 흥을 돋웠다. 플라마켓 부스에서는 지역 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각종 농산물 판매와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도 진행했다. 축제의 주무대가 된 의흥향교와 의흥전통시장 외에도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 스탬프 투어와 대구시 유명 캐리커처 작가인 산티가 그려주는 '우리 가족 캐리커처'는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의흥상가번영회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경품으로 내놓아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이번 축제는 잊혀져가는 골목상권에 활기를 되찾고 지역의 특색있는 골목상권으로 성장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김진열 군수는 "골목상권 상인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해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한 만큼 지역 상인들의 역량이 많이 커지고 결속력이 강해진 것 같다"며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의흥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축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삼국유사 테마파크(의흥면 이지리)와 골목상권 내 제휴 상점 상호 방문 시 힐인 혜택 이벤트는 오는 12월 말까지 계속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TK신공항 건설' 공동 SPC 난항... 사업방식 연말까지 검토

고금리로 민간사업자 공모 어려워 정부협의 지원 선결 방안 등 모색 특별법 개정 통해 차질 없게 진행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적의 사업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민간 공동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장기적인 고금리로 인한 사업 여건의 악화, 건설 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대구시는 민간 공동 SPC 사업 방식 외에 대구시가 공적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방안과 대구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 개발 방식 등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비교, 검토했다.

한편 민간 공동 SPC 개발 방식은 민간 재원 조달과 창의적 개발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비 전액 민간 PF조달로 인해 금융 이자가 14조 800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46%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로 SPC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가 공적자금을 일정 부분 투입하는 방안은 개정 중인 TK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선반영하고도 손익분기점 도달을 위해 공적자금(8조5000억원)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대구시 공영 개발은 정부 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10조3000억원)되며 안정적인 사

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앙정부 협의를 선결해야 한다.

한편 24일 마감 예정인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모집 공모'는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롯데건설, HS화성, 서한, 태왕이엔씨)에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는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사안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국회 계류 중이므로 금융기관의 금융약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 대구시와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사업참여 계획서를 대신해 제안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가능한 모든 사업

방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장 최적의 사업 시행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해 당초 오는 2030년 개항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최대 민간공항 통합 이전사업인 TK신공항사업 공모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참고하되 보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라며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의 여건을 한 단계 더 개선해 오는 2030년 신공항 개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문예진흥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눈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한국경영인인증(KMR)으로부터 안전보건 분야 국제표준 규격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의 효율적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기관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제도다.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관 경영 주체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 및 질병을 기구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평가 및 분석에 예

방 활동을 진행해 기관 근로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문예진흥원은 지난 4월부터 안전보건 요구 조건에 맞춘 경영방침 및 목표를 설정하고 지침서와 규정을 정립했으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교육과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확립한 점 등을 이번 평가에서 인정받았다.

김경길 원장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내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됐음을 증명했다. 관람객과 시민에게는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예술인과 진흥원 직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창작 환경과 노동환경을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 어린이집 특별비 '전액 무상' 지원

달성군은 다음달부터 지역 내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사회복지법인인 가리지 않고 모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이 형성성 있게 양질의 특별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하는 사업을 전면 진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자부담이었으며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특별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 군은 이로 인해 특별

활동에서부터 오는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필요한 사업비 8억1000만원 정도를 이번 2차 추경에 요청했으며 필요한 비용을 군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24개월 이상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수준 높은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공평하게 제공되는 특별활동의 기회는 원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

내 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달성군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는 4500여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달성군 전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특별활동비로 연간 납부하고 있던 22억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돼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8기를 시작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방침 아래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영아교사 전담

배치 사업과 △유보통합을 위한 대구시교육청 협업 사업 중 하나인 영유아 숲밭놀이 체험 운영 등과 함께 △의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육아 토크콘서트 및 영유아 대축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군은 이번 사업 실시로 전국 최고의 교육·보육 특화도시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최재훈 군수는 "영유아를 위한 정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초석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충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살국유사의
눈길교장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전 세대 함께 즐긴 '영주 한가위 큰잔치' 성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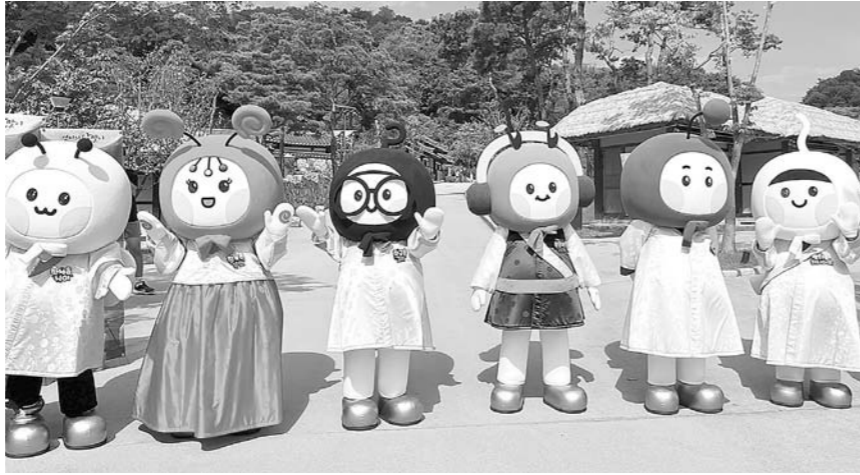
9일간 6000명 관광객 발길 이어져 추석 당일 3000명 방문 '큰 호응'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 앞장

영주시 선비세상에서 열린 '2024 한가위 큰잔치'가 9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기간 6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추석 당일인 지난 17일에는 약 3000명이 방문했다.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진행된 키즈 캐릭터 심어롱쇼와 퍼레이드는 2600



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캐릭터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부모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K-컬처 맛보기, 한복체험 역시 추석 연휴 기간 2000여명의 관람객이 참여

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을 입고 선비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아울러 윤문식의 싸가지 흥부전도 큰 인기를 얻었다. 윤문식이 선보인 흥

부전은 현대적인 유머와 풍자를 가미한 작품으로 전 좌석이 매진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선비세상 잔디마당에서 열린 '한가위 가을 운동회'와 '선비세상 한마당' 버스킹 공연, 한음악당의 다양한 공연 등도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한 원데이 쿠킹클래스, '선비의 비밀을 밝혀라!'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또한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제)영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선비세상만의 특색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예천, 추석맞이 농특산물 특판전 대박났다

전년비 34%↑, 26억4천만원 판매고 다양한 홍보·할인행사 효과 특목

예천군 직영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예천장터'에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된 예천군 농특산물 추석맞이 특별판매전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년도 추석맞이 특판 행사 대비 34% 증가한 26억4000여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특판전에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보유한 우체국쇼핑몰 내 '예천군브랜드관'을 운영해 기획전으로 10%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공공협업형 홍보 마케팅을 통해 특판 기간 동안 8억여원의 판매고를 추가로 올렸다.

또한 온라인 '예천장터'에서는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를 집중 시행하고 사전구매기간 동안에는 주문금액의 15%할인 쿠폰을 발행했고 추가로 전 고객에게 5% 할인쿠폰을 제공했다.

추가적으로 서울 대도시 직거래장터

에 참여해 추석맞이 특판전을 홍보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널리 알렸으며 우수 농특산물 카탈로그 제작 및 우편 발송으로 출항기업인 대상 맞춤형 오프라인 유선 상담을 진행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주문이 이뤄져 지난해 대비 눈에 띄는 실적 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

예천장터 주산지의 명성에 걸맞은 '예천참기름'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품질이 우수한 참·들기름이 매출 상승의 주된 역할을 했으며 한우, 꿀, 사과, 사인머스켓 등의 품목들이 그 뒤를 이었다.

김학동 군수는 "해마다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 예천장터를 이용해 주시는 장기 고객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예천 농·특산물이 다각적인 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 명절마다 많은 고객이 즐겨 찾는 예천군 농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안동,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 '한발 더' ... 민선8기 공약 점검

109개 공약 중 64건 완료·45건 진행 주민배심원 회에서 주민참여 교육

안동시가 주민배심원을 통해 민선8기 공약사업을 점검한다. 공약사업에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담아 시민이 원하는 시정 구현에 한발 더 가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청백실에서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ARS 전화를 통해 무작위 선정된 27명의 시민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류병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강사를 통해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이라는 주제로 주민참여와 속의민주주의 등에 대해 교육했다.

이날 5개 분임으로 구성을 완료한 배심원단은 추후 진행할 2·3차 회의에서 담당부서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을 거



쳐 공약사업을 심의하고 평가한다.

1·3차 회의는 운영 과정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날 위촉장을 전수한 장철웅 부시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약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라

며 "위대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새로운 안동을 열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5월 '민선8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또한 7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신뢰성을 더해가고 있다.

현재 안동시는 민선8기 109개 공약 중 64건을 완료하고 45건은 진행하고 있으며 76%의 공약이행률을 보인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투명하고 신뢰받는 봉화 만들기 '술선수범'

제3차 청렴추진협의회 회의 개최

봉화군은 지난 20일 제3차 청렴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의 청렴 시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익명게시판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으며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의할 예정이다.

또한 실·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수평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을 취합해 오는 2025년 청렴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특히 공통적으로 제시된 개선사항 중 '수평적 소통과 실무자 협업 강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정기적인 회의와 타운홀 미팅과 같은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 외에도 MZ세대와의 소통의 장 마련, 역할 중심 업무 체계 도입 등과 같은 의견들을 공무원 노조와 함께 청렴 시책을 발의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현국 군수는 "이번 협의체 회의를 통해 우리 조직이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의성군, 경쟁력 가진 글로벌 인재 육성

교사·학생 교류단 중 셴양시 방문

의성군은 코로나19로 중단된 청소년 문화교류 추진을 위해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셴양시를 5년 만에 방문한다고 밝혔다.

의성군 교사·학생 교류단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4박 5일 동안 의성교육지원청 성태동 교육지원과장을 단

장으로 교사 및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25명의 교류단이 국제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셴양시(咸陽市)를 방문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셴양시는 중국의 첫 통일국가인 진(秦) 나라의 수도였으며 한(漢)·당(唐)시기까지 수도권에 속해 중화민족 수 천년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간직한

역사 도시로 의성군과 지난 2003년 10월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의성군 중국 셴양시 교사·학생 방문 연수는 지난 2005년 4월 두 도시 간 '교사·학생 정기교류 합의서' 채택 이후 13번째 방문이며 셴양시의 교사·학생들도 의성군에 8차례 다녀갔다.

이러한 연수는 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웃나라의 교육과 역사·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우호 협력 증진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 셴양시의 2개 학교를 방문해 두 지역 교사·학생 상호 간 우호교류 활동을 주요 일정으로 하고 병마용, 대자은사 등 셴양시의 주요 역사 문화지역을 방문해 학생들의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청송군 '치매극복 행사'로 인식 개선 도모

청송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여도 괜찮아,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해요'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0일, 13일 이틀간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 치매극복 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현동면과 진보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부스 운영, 피켓 및 어깨띠 가두캠페인이 열렸으며 500여명의 청송군민이 참여했다. 치매바로알기 OX퀴즈, 치매인식 캠페인, 치매예방 수칙 및 치

매상담 콜센터, 청송군치매안심센터 사업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윤경희 군수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 치매극복 주간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호와 존중을 받으며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청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0@hanmail.net

상주시
SANGJU CITY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문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구미산단, 문화 품은 청년 활력공간 '대변신'

전국 유일 '문화 산단' 시범 추진
내달 4~6일 산단 페스티벌 시작
11월까지 보세장치장 일원 진행
공연·전시·팝 등 놀거리 '풍성'



을 청년들이 살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 4일 구미산단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단동 보세장치장 일원(1공단로 198-14)에서 진행된다. 과거 수출입 기업의 통관 지원과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되던 보세장치장은

이제 '보세문화산단'으로 변모해 젊음과 낭만이 가득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 달라진다. 이곳은 근로자들의 기숙사와 사택 밀집 지역에 위치해 퇴근 후 근로자들이 손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는 10월 4일 저녁 7시에 열리는 '구미산단 페스티벌'은 '구미에 산단은(산단은) 자부심'을 주제로 청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식에서는 김창완 밴드와 불고기디스코 밴드가 공연하며 40여명의 산단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공중합동 퍼포먼스 '춤추자! 산단사람들'이 펼쳐진다. 5일과 6일에는 '비움과 채움'을 테마로 거리예술, 산단택(EDM), 미디어아트, 예술놀이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은퇴 근로자들을 위한 초청 만찬과 산단 리서치, 아카이브 전시 등도 마련돼 근로자들의 공로를 기리고 그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제 이후 보세장치장 A·B동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산단-팝'과 미디어아트 공간 '산단-빔'이 운영된다. 산단-빔은 청년층에게 신선함을, 장년층에게는 추억을 선사하며 산단-빔은 다양한 디지털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 산업과 예술의 융합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산단-팝'은 서울 성수동의 핫플레이스 못지않은 매력을 제공하고 F&B로 운영되는 A동은 지역 상가와 협력해 경제적 활력도 기대된다. 김창호 시장은 "구미산단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해 청년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문화산단 가능성을 입증해 내년도 문화산단 추진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익분기자ub0104@hanmail.net

칠곡 '약목에코파크' 상업운전 개시

총용량 9MW 연료전지 발전소
연간 74GWh 친환경 전기 생산

칠곡군은 24일 약목면 복성리에 위치한 고효율 SOFC(Solid Oxide Fuel Cell, 고체산화물연료전지) 발전소인 '약목에코파크'의 상업운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약목에코파크'는 설비 용량 9MW의 연료전지 발전소로 연간 74G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2만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사업추진은 지난해 11월 13일 칠곡군과 영남에너지서비스, SK이터닉스(구 SK디앤디)가 칠곡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연료전지)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후 12월부터 SK이터닉스가 총사업비 약 640억원을 들여 4300㎡(1300평) 부지에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운영은 SK이터닉스 등 재무적 투자자가 공동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운영하고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앞서 SK이터닉스는 올해 8월 6일에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설비용량 20MW의 '칠곡에코파크' 연료전지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개시한 바 있으며 이로써 칠곡군에는 2개소의 연료전지 발전소에서 연간 총 239GWh의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약목에코파크'의 상업운전 개시는 칠곡군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인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오는 2026년까지 자체예산 총 40여억원을 투자해 면 소재지 일원에 도시가스공급 배관망을 구축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보다 안전한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간 투자유치를 위해 힘써 온 김재욱 군수는 "약목에코파크 연료전지 발전소 투자유치는 기업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칠곡군에 투자해 준 기업과 유치를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지역 근로자·군민 위해 성주군-경일대학교 협력

평생교육 기반 조성 MOU 체결
인재 육성·교육격차 해소 '힘'

성주군은 23일 경일대학교와 지역의 평생교육 기반 조성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재직자 및 군민 평생교육 기반 조성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병환 군수와 정현태 총장, 여정환 학생회장 등 성주캠퍼스 학생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은 협동수업 등 경북미래라이프대학 정규 학위과정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 기업 재직자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 지방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 성주군의 우수한 인재 육성,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성주군은 지난 2021년 12월 계명문화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오는 2025년 본격 추진 예정인 RISE사업 등과 연계해 경일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고등·평생학습 체계를 구축, 저출생·고령화 문제 극복과 지역 고등·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병환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지내 재직자들과 군민들이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일호기자hoyal515@daum.net



고령, 청년 열정·꿈 응원 '희망 메시지' 전하다

청년의 날 기념 공연 성황리 종료
일상에 지친 청년들에 힐링 선사

청년의 삶과 함께하는 고령군의 적극적 청년정책의 일환인 '제2회 고령군 청년의 날 기념 공연 CRESCENDO(크레센도)'가 지난 22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600여명의 청년이 관람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대가야문화누리 대공연장인 우륵홀이 조기에 전석 매진되며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된 이번 공연은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하는 뮤지컬 갈라쇼 형태

로 꾸며졌으며 고령군과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단장 서철현),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로 선정된 뮤즈타운(청년 다운타운대표 심광섭)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기획력이 합쳐져 청년들이 원하고 바라는 문화 공연으로 개최됐다. 크레센도(점점 더 강해지는 소리의 흐름을 뜻하는 음악적 기호)는 청년의 도전과 꿈을 적극 응원해 사회 전체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고령군의 의지와 바람을 담은 네이밍이다. 이는 공연 부제인 '청년의 꿈을 더 크게'와도 부합한다. 김일호기자hoyal515@daum.net

고령군 청년 밴드 룬(RUNE)의 에너지 넘치는 사전 공연에 이어 유명 뮤지컬 배우인 민우혁, 소나, 진정훈, 곧나 끝내 등의 양상별 공연과 대중적인 뮤지컬 넘버 곡들을 청년들과 함께 부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일상에 지친 청년들에게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며 관객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남철 군수는 "청년이 곧 미래의 희망이고 청년의 꿈이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이자 씨앗이기에 청년들의 열정과 꿈을 응원하는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어게인 상주!'... 2025년도 시정 방향 점검

신규사업 130건·주요사업 282건
총 412건 사업 추진·실행계획 논의

상주시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영석 시장 주재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과거 경상도 중심도시로서 상주의 위상을 다시 드높이기 위한 'Again! 경상(慶尙)의 꿈-상주'를 슬로건으로 2025년도 신규사업 130건과 주요사업 282건 등 총 412건의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스마트농업·지식산업센터 건립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 △저출생 극복 사업 추진 △통합 아동돌봄센터 조성 △공간혁신지구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 국·도경 과제와 민선8기 공약이 반영된 신규사업 발굴로 저출생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 나갈 계획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클러스터 및 제2일반산업단지의 본격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뤄지고 일자리창출과 인재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과 상주형 일자리 공급에 지원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및 관련 산업 집적화를 꾀하는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과 전략적 산업을 지원 및 상주명품쌀 유통활성화 지원 등으로 지역농산물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민 복지 증진과 저출생 대응으로 △지역맞춤형 돌봄 강화 △영·유아 보육지원 강화 △시니어 복합센터 건립 등 행복한 양육과 안정된 노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상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전국 e스포츠대회 개최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을 통해 시민 문화·관광·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강영석 시장은 "올해 시민과 공직자의 단합된 힘으로 지정받은 공간혁신구역,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가 중흥하는 미래상주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면 오는 2025년에는 이러한 기반에 힘을 더하고 상상을 주도해 시민이 행복한 상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임찬완기자changwan12@naver.com

세한금속주방
대표 김효철

경주시 유림로 5번길 133
☎ 054-749-7979

기아충효대리점
대표 박종찬

경주시 태종로 382-3
☎ 054-742-1010

KB손해보험 경주지점
조봉래

경주시 화랑로 125 5층
☎ 010-3506-2781

GSIA-슈어소프트테크, SW 핵심인재 키운다

청도혁신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적극 지원”

실무 중심 인재 양성 위한 MOU
현장 실습·정규직 채용 등 지원
관련 지역산업 생태계 확산 ‘한뜻’



지난 20일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GSIA)는 슈어소프트테크(주)와 국가적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에 앞장서는 교육기관과 소프트웨어 안전성 검증 분야의 국내 최고 혁신 기업이 뜻을 모은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지난 2002년 설립 이후 국내외 소프트웨어 품질 및 안전성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코스닥 상장 기업이다. 특히 자율주행차, 항공, 국방, 의료 등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모델 검증, 코드 검증, 시스템 검증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결함 사전에 발견하고 품질 보증을 위한 다양한 인증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및 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에는 신성장 동력으로 인공 지능(AI)을 육성하고 있다. 더불어 AI 시대에 맞춰 AI 소프트웨어

검증 생산성을 높이는 ‘테스트 바이 AI’와 AI 자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오브 AI’ 두 가지 방향으로 미래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이념에 부합하는 우수 교육생의 현장 실습 프로그램 및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또는 정규 직원 채용 △우수 학생 연계 과 공동 프로젝트 진행 △기업 탐방 및

기업 설명회, Meet-UP 데이 등 진행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SW 인재 양성 재능 사다리 연계 구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국가 및 지역 SW 생태계 활성화 기여 등이다.

이현수 학장은 “42경산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슈어소프트테크(주)와 같은 우수한 기업으로 인턴십 및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협업을 통해 지역 SW 생태계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배현섭 대표는 “소프트웨어 품질과 안전성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인재들을 다수 모집할 예정”이라며 “교육생들이 많이 지원해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기관 간 협력은 국가 SW 인재 양성 과 글로벌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 SW 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강동욱기자kwondrumkakao@daum.net

군과 교육·컨설팅 사업 협업키로
정주문제 해결, 인구조별 해법 제시

이번 사업에는 △카페 및 케이터링 사업을 운영하며 농산물 체험 농촌 관광 아이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꾸꾸네’ △청년 커뮤니티 및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다스’ △지역 공감을 운영하며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로리인’ △평생교육으로 농촌 시니어의 사회참여를 끌어내는 ‘할_베스트>할_베스트’ △김천시에서 지역 청년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미미정’ △지역 농장을 활용해 아동·노인 체험 미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희망세움터’가 참여했다.

청도군과 청도혁신센터는 ‘2024 경북-청도 비영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 쇠퇴, 고령화와 인구조별 등 오늘날 지방이 가진 문제 해결을 위해 비영리 스타트업 육성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음세대재단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준비했다. 군은 지난해 8월 경북-청도 로컬 임팩트 비즈니스 포럼 ‘로컬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임팩트 비즈니스의 세 가지 경로’에서 농촌에서의 비영리 스타트업 경로를 제시했으며 농촌 정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이달 20일까지 경북과 청도에 소재한 6개 팀을 대상으로 청도 로컬임팩트포럼에서 진행됐다. 경북 및 청도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스타트업의 방향성과 경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프로그램은 비영리 스타트업 개념에 대한 교육 과 사회혁신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사업 모델을 설계하는 워크숍,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 계획을 위한 1대 1 컨설팅으로 구성됐다.

우장환 센터장은 “일반적인 벤처, 스타트업이 사업규모 확대와 투자회수를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농촌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고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농촌은 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2G 영역의 사업 기회가 많은 까닭에 공정성을 담보하는 비영리 조직 형태가 사업에 유리하다”며 “청도혁신센터는 농촌의 정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비영리 스타트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영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열기자artmong0@naver.com

‘21회 영천 보현산별빛축제’ 성공 개최 위한 준비 착착

시,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열어
교통·먹거리 등 전 분야 점검나서



영천시는 지난 20일 최기문 시장, 시의원 및 축제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세부추진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불거리 및 즐길거리, 교통 및 주차, 먹거리 등 모든 분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다짐했다.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영천보현산천문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1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별을 담다, 거대한 별빛을 품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주제관 운영, AR 프로그램, 별자리 강연, 어린이 도전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신청을 통해 국내 최대 1.8

m 천체망원경을 보유한 보현산 천문대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별 관측 스타파티 프로그램에서 대학교 천문 동아리와 함께 천체를 관측할 수 있고 일몰 후에는 별자리 강연, 별이랑 아이컨택(별 보기) 행사도 준비돼있다.

특히 4일 개막식에서는 식전공연으로 영천YMCA합창단 공연이 펼쳐지며 200대의 드론이 펼쳐는 LED 라이트 쇼

와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 이석훈의 축하공연도 함께 열린다.

또한 시에서 운영 중인 보현산천문과학관 및 전시체험관의 이용료 할인, 화북면과 자양면의 직거래장터 운영,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영천시립도서관, 천사모(영천시 과학교사모임) 등 다양한 기관 및 지역민의 참여를 통해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

이다. 김선옥 추진위원장은 “별빛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기문 시장은 “곧 개최되는 보현산 별빛축제가 영천만의 특별한 즐거움과 감동을 담아내는 성공적인 행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석열 기자jisy92920@hanmail.net

포항新光중 김태형, 발명 대통령상 ‘영예’

이강덕 시장, 학생 만나 수상 축하



이강덕 포항시장은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화제가 된新光중학교 3학년 김태형 학생을 초청해 격려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김태형 군과 부모님, 지도교사를 만나 발명품을 출품하게 된 과정 등을 경청하고 뛰어난 창의력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은 학생을 축하했다.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지난 1979년부터 학생들의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열렸으며 올해 대회에는 1만1589명이 참가했고 지역 예선을 거쳐 300명이 전국대회에 진출했다.

김태형 학생은 기름기가 많은 국물 음식에서 기름을 걷어낼 수 있는 국자인 ‘뱃살잡아 백살까지! 기름잡는 국자’를 출품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발명품은 잔을 가득 채우면 술잔이 비는 사이편 원리를 적용한 전통 술잔 ‘계영배’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국물과 기름을 뜨면 아래에 가라앉은 물은 계속 빠지고 국자에 기름층만 남게 되는 구조다.

김태형 학생은 “출품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게 돼 자신감을 얻게 됐다”며 “꼭넓은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일상 속 불편함을 톡톡 튀는 창의력으로 끊임없이 연구해 좋은 결실을 맺은 학생과 지도 교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동현 기자dogh0311@naver.com

울진군, 26일 서울아산병원 교수 초청 특강

울진군은 오는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를 초청하여 ‘느리게 나이드는 삶 디자인하기’라는 주제로 제22회 목요일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 정희원 교수는 노년내과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100세 시대를 맞아 노화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속 노화’ 생활법을 소개한다.

특강 강연자인 정희원 교수는 KBS ‘생로병사의 비밀’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유튜브 ‘정희원의 저속노화’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대중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한편 손병복 군수는 특강에 앞서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 대비를 위한 유익한 강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p>가인전력에너지 대표 김 영 철</p> <p>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37 ☎ 054-762-2007</p>	<p>하나자동차매매 대표 박 원 섭</p> <p>경주시 동단로 108(용강동) ☎ 054-749-5858</p>	<p>경상투데이 광고 문의</p> <p>대표전화 ☎054-748-0070</p> <p>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p>
---	---	--

백두대간 힐링 숲에서 가을 정취 느껴보세요~

산림치유원, 27·28일 박람회 다양한 치유체험 프로그램 마련 미술쇼·뮤지컬 등 볼거리 가득

“2024년 백두대간 지역상생 산림치유 박람회”가 오는 27일, 28일 이틀간 국립산림치유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숲에서 즐기는 가을 축제로 산림치유와 문화·힐링 콘텐츠를 전시해 백두대간 입산자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널리 홍보하고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국립산림치유원이 주관하고 경북도와 영주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치유장비체험, 수(水)치유 체험, 황토어싱 광장 및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카프라, 클레이비누만들기), 해먹체험, 싱잉볼 명상 등 전년 대비 다양한 상시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민과 관련 종사자들에게 한발 가까이에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됐다. 이와 함께 치유산업 관련 정책 및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치유산업에 대한 세미나 개최 및 산림유관기관의 채용상담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관련학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두대간에서의 쉼 느끼기 위한 힐링 명상의 시간으로 ‘숲명 때리기 대회’ (사전모집)와 ‘불명특독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레벨업’ (댄스팀), ‘최교덕’ (농부 마술쇼), ‘리플레 솔로이즈’ (클래식 악단), ‘세로토닌 예술단’ 등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어린이를 위한 마술쇼 ‘홀리’ 및 ‘시니어발레단’, 트로트 가수 ‘한강’, 팝페라 가수 ‘배은희’, 어쿠스틱 국악 ‘땅콩콩’, M.ost(뮤지컬 갈라공연), 세로토닌 예술단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전문MC와 함께 입산물을 활용한 요리 시연, 목재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인견, 사과, 꿀, 수제꽃차, 오미자청 등 지역 특산물 판매까지 소소한 볼거리가 준비됐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soopevent.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4-639-3400)로 문의하면 된다. 급두섬 시 산림과장은 “이번 백두대간 산림치유 박람회가 산림의 치유 효과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산림 치유 산업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박람회에 오신 분들이 다양한 산림치유 문화콘텐츠를 마음껏 즐기면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영 기자jhy4430@hanmail.net

청도 첫 관광팝업 홍보관, 관광객 인기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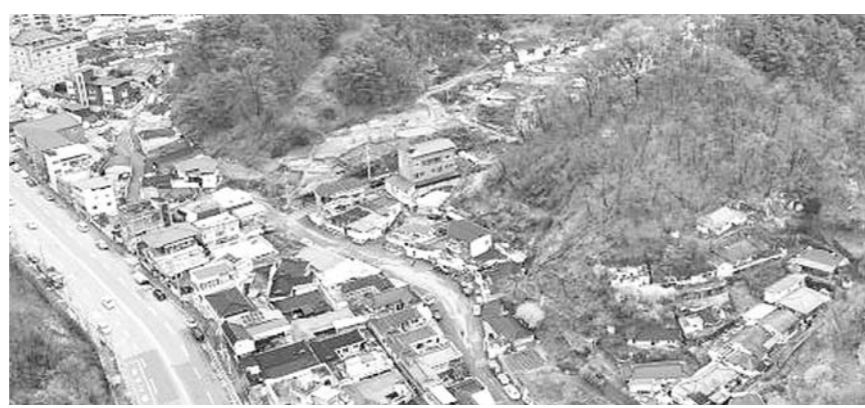
군, 재활용 소재 친환경 부스에 명소 소개·특산물 시식 등 호응

청도군은 서울 성수동에서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청도군 첫 관광팝업 홍보관 운영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팝업 홍보관에서는 청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관광명소, 특산품을 소개하며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지역주민이 진행한 강연과 체험, 특산물 시식 코너를 비롯한 포토존은 많은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며 한 장의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서울 출발 시티투어 프로그램인 ‘나드리 투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MOU를 통해 최대 50% 열차 승차권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지역사랑 철도 여행 상품’ △체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 페스타’ 소개를 통해 수도권에서 청도로 알뜰하고 편리하게 여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김하수 군수는 “청도군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자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로 5년 연속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한 청정 여행 지역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 동안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는 성수동의 팝업 홍보관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지향하기 위해 종이의 자와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최대한 활용한 홍보부스 설치 등 환경 보호와 관광 활성화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인프라 취약한 ‘안동 신안·안막지구’ 내년부터 싹 바뀐다

시, 지시위 공모 선정 29억 확보 노후주택 정비·주민역량 강화 등



안동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어촌 지역(풍산을 현애리 감매마을) 공모 선정과 더불어 신안·안막지구 역시 도시 지역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9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및 확충과 집수리, 주민참여 사업, 민관협력 등을 통해 경제·사회적·물리적 사업을 병행, 생활 여건을 포괄적으로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인 신안·안막지구는 30년 이상 노후 주택이 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마을안길 폭이 대부분 2~3m

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시는 ‘안전하고 안녕한, 신안·안막동’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 위생, 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마을경관 개선 △노후주택 정비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등 지역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주거 및 생활 수준을 확보하고 주민이 자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들, 안동서 열띤 승부

11월 3~7일 ‘안동시-한국경제TV배 전국파크골프대회’

“제1회 안동시-한국경제TV배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오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지역 내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23일 안동시와 (사)한국프로파크골프진흥협회가 안동시 파크골프 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회이다. 개인전 36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녀 각 1152명이 4일간의 예선을 거쳐 각 216명이 본선 경기를 치른다. 이번 대회는 MVP에게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는 등 총 1억3500만원의 시상이 걸린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전국의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는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전국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해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안동 관광홍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월 11일까지 (사)한국프로파크골프진흥협회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청소년 꿈에 ‘날개를’

28일 21회 LG드림 페스티벌 결선 노래·댄스 부문 열띤 경합 ‘눈길’



“청소년들의 꿈을 LG가 응원하겠다”. 장기수 LG경북협의회 사무국장이 제21회 LG드림 페스티벌 본선 경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21회 LG드림 페스티벌 본선 경연이 지난 2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개최된 가운데 결선 무대진출 6개 팀이 결정됐다. LG드림페스티벌은 지난 2000년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발굴기 위해 시작돼 김태우, 황치열, 권정열 등 많은 스타를 배출하며 청소년들에게 꿈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다. 이번 본선무대는 전국에서 참여한

472개 팀 1534명의 참가자가 지난 5일 온라인 예선심사를 거쳐 노래, 댄스 부문 각 10개 팀이 본선 진출자로 선발돼 열띤 경합을 펼쳤다. 이날 경연결과 노래부분 TOP3에는 싱어송라이터 주은, 구구, 미묘한 육각 관계가 선정, 동상 OFD, 장려상 임지

성, 인기상 오렌지가 각각 수상했다. 댄스 부분에는 TOP3에는 나타라자 V, 더너즈, 프리스트가 선정 돼 결선에 진출했으며 동상에는 춤서리, 장려상 왓자지걸, 인기상 여범허풍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결선무대는 오는 28일 구미낙동강 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1부에는 청소년 TOP3결선 경연이, 2부에는 스킵&하하, 위클리, 영파씨, 흰, 황치열, 브브걸, SF9, 적재, 에이핑크의 축하공연과 함께 SBS 걸투쇼 특별공개 방송이 선보인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영양군, 반려인 위한 행정서비스 ‘박차’

영양군은 ‘반려인 1500만명 시대’를 맞이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반려동물 기반사업을 준비해 2022년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2023년 ‘제1회 반려동물 체험 프로그램 행사’ 개최, 경산권 최초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영양군 반려동물 놀이터는 대형견 놀이터(298㎡)와 중소형견 놀이터(300㎡)를 구분해 동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25년에는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센터, 군립 동물병원,

애견 휴게실, 훈련장, 놀이터 등을 동시에 갖춘 ‘동물복지 복합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양군은 공모사업인 반려동물 인프라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증가에 맞춰 쉼터, 산책로 조성 및 동반 가능 이용 시설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반려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영양군에서도 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축하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블에이치플랜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군위를 품고 '더 커진 대구'의 가을 빛깔은?

대구문화예술평원 대구근대역사관 특별기획전 연계 가을 답사 진행 의흥향교·인각사 등 방문 체험 참가자 35명 방문·전화 모집 중

(재)대구문화예술평원 박물관은 영본부 소속 대구근대역사관을 가을을 맞아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위군과 팔공산 일원에서 '더 커진 대구의 가을 빛깔은 어떤 색일까?'라는 주제로 가을 답사를 떠난다. 대구근대역사관은 지난해 7월 군위

군 편입으로 '더 커진 대구'의 역사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하기 위해 '더 커진 大邱, 군위를 품은 대구' 특별기획전 (5월 30일~11월 24일)을 기획해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기획전과 연계해 25일에는 팔공산과 군위군 등을 찾아가는 '더 커진 대구의 가을 빛깔은 어떤 색일까? -2024년 대구근대역사관 가을 답사'를 진행한다. 답사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지난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성인 35명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전화 (053-430-7917) 또는 대구근대역사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 커진 大邱, 군위를 품은 대구' 특별기획전은 현재까지 1만6000여명이 관람했다. 그동안 연계 행사로는 군위군 편입 1주년이 되는 지난 7월에 대구의 정체성을 찾아보는 이창언 영남대학교수의 '더 커진 대구, 도시 정체성 찾기' 특강을 진행했으며 8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더 커진 대구야! 역사랑 놀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답사로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석굴, 의흥향교, 인각사,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미대동 만세운동 기념비 등 더 커진 대구의 역사 현장을 찾아간다.

여행하기 좋은 가을날, 다채로워진 대구의 역사문화 현장에서 해설을 들으며 가을 빛깔을 만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형석 관장은 "여행하고 싶은 가을에 대구근대역사관은 대구 지역사를 알기 위해 역사 현장을 찾는 답사를 진행한다. 많이 참여하셔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고 자신만의 빛깔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에도 대구근대역사관은 지역사에 관련된 새로운 전시와 역사 특강, 시나 답사 등을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강두용 기자wondrumkakao@daum.net



문화재 해설과 함께하는 음악 힐링 나들이

청도, 문화재해설사·음악인들과 28일 읍성 석빙고 일원 정기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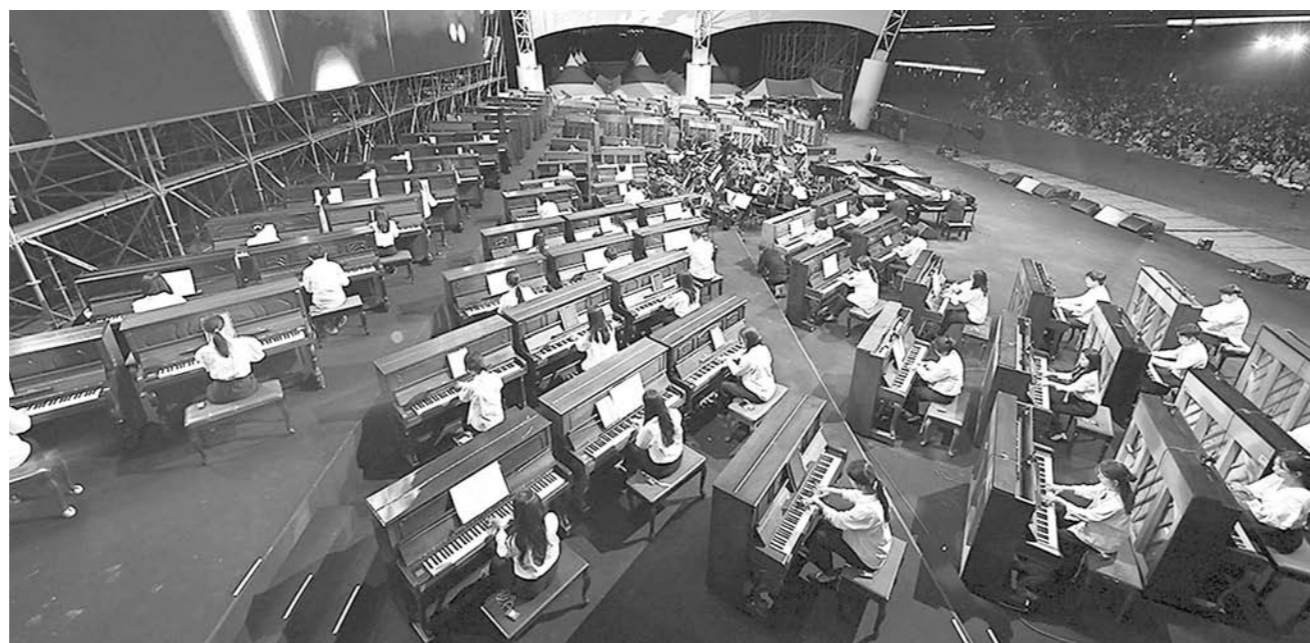
청도군이 주최하고 (사)한국음악협회 청도지부 (지부장 김주석)가 주관하는 '(사)한국음악협회 청도지부 정기공연'이 오는 28일 청도읍성 석빙고 일원에서 개최된다. (사)한국음악협회 청도지부는 지난 2016년 설립돼 청도를 대표하는 예술인 단체로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음악발전에 기여해왔다. '문화재 해설과 함께하는 음악회'란 주제로 지역 음악가들의 역량과 청도

의 역사와 문화를 관람객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주요 출연진으로는 문화재 해설사 김성태, 성악가 테너 손준수, 소프라노 이해영, 바이올린 이진봉, 안코라 조바니 합창단과 함께 바쁜 일상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뜻깊은 공연이 될 예정이다. 김하수 군수는 "청도 음악인들의 예술적 역량을 결집해 군민과 많은 관광객에게 지역의 음악과 역사의 아름다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열 기자artmong0@naver.com

감동·즐거움 100배... '2024 달성 100대 피아노' 28일 팡파르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오후 7시 클래식·뉴에이지·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 정상급 대거 출연

달성문화재단이 주관하고 대구시와 야마하 뮤직 코리아에서 후원하는 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2024 달성 100대 피아노'가 이달 28일 오후 7시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클래식, 재즈, 뉴에이지,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정상급 출연진들의 공연과 함께 이색적인 포토존, 푸드트럭 등 부대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오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보다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이틀간 진행했던 행사를 하루로 단축하고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해 관객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흥덕대학교 조소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금호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전당 등에서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며 '비디오 조각' 장르를 개척한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금민정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가 공연 중 화면을 통해 연출하는 시각적 효과로 축제의 예술성을 더할 계획이다. 이는 이전 축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내용으로 올해 달성 100대 피아노의 차별성을 보여줄 부분이기도 하다. 축제의 예술감독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선정됐으며 김정원 예술감독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와 프랑스 파리 고등국립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국내외 주요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활동과 활발한 국내외 공연을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다. 김정원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신박 듀오'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신미정과 박상욱, 촉망받는 젊은 피아니스트 최이삭이 파트별 리더를 맡았다. 이들과 지역예술인들과 오디오션을 통해 선발된 96인으로 이뤄진 100인의 피아니스트들은 올해 공연을 위해 구성된 '달성피아노페스티벌'을 위해 구성된 '달성피아노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달성 100대 피아노'만의 웅장한 음악을 들려주고자 한다. 준비된 음악으로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2세의 명곡들과 체코를 대표하는 작곡가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등이 있다. '달성피아노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지휘는 최연소 원주시립교향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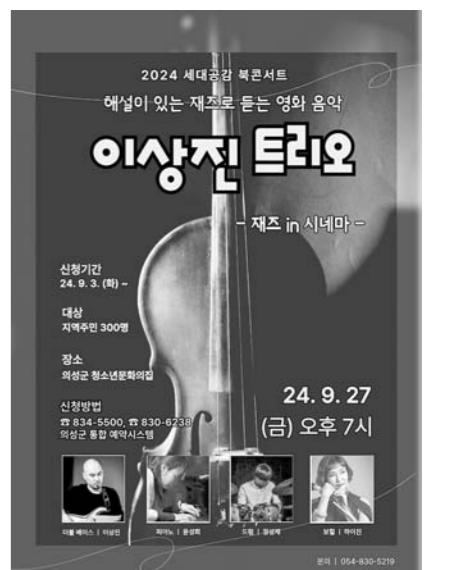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김광원이 맡았으며 오케스트라와 예술감독 김정원의 협연으로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무대도 마련될 예정이다. 달성군이 선사할 가을밤의 낭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예술감독과 파트별 리더 피아니스트 3인이 선보이는 특별한 앙상블 무대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뉴에이지의 거장,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준비한 그의 대표 곡들이 뉴에이지의 깊은 감성을 전달하려 한다. 또 동시에 이 시대 최고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손꼽히는 조운성, 드러머 이상민, 베이스리스트 박제신으로 구성된 재즈 트리오에는 재즈의 자유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사문진을 재즈로 물들이고 가수 박정현이 울림 있는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서 지정한 '로컬100-지역문화 상품·브랜드' 부문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은 '달성 100대 피아노'는 해마다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돛자리석을 올해도 운영한다. 무대에서 가장 가까운 관람석을 돛자리석(전체 관람석의 30% 정도)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에게 관람 편의와 만족도를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최재훈 재단 이사장은 "우수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은 달성 100대 피아노가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예술성을 널리 알리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달성 100대 피아노'의 관람료는 무료로 이달 28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이 외에 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 (www.dsart.or.kr)를 참고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장충찬 기자gst3000@naver.com

재즈로 듣는 영화 OST 선율 속으로 '퐁당'

이상진 트리오 '재즈 인 시네마' 27일 오후 7시 의성 청소년문화의집

의성군은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의성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상진 트리오의 '재즈 인 시네마'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즈 인 시네마'는 지난 4월 18일 소설가 김영하를 시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의성군의 독서진흥사업인 '2024 세대공감 BOOK콘서트'의 다섯 번째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책을 주제로 저자와 소통하던 저자강연에서 벗어나 조금 더 쉽게 책과 친해지기 위해 영화 OST를 재즈로 재해석하고 해설까지 해주는 공연으로 준비됐다.



이번 공연은 더블베이스의 이상진, 피아노의 윤성희, 드럼의 정성재와 보컬의 하이진까지 함께하는 이상진 트리오가 '화양연화'의 'Quizas, Quizas, Quizas', '접속'의 'A Lover's concerto', '헤리가 샬리를 만났을 때'의 'It had to be you' 등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를 총 9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재즈공연 이후로 오는 10월 24일 이정도 '찬란한 멸종-거꾸로 읽는 유쾌한 지구의 역사' 10월 30일 김경필 '마음의 지혜! 한국인의 소통과 지혜' 11월 21일 유인경 '행복한 관계

& 행복한 삶' 12월 5일 이준영 '2025 트렌드 코리아' 등 과학부터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2024 세대공감 BOOK콘서트'는 매일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도서관 방문 및 전화 (054-830-6238, 054-834-5500), 의성군통합예약서비스(usc.go.kr/reserve)를 통해 신청받는다. 기타 강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전화 (054-830-5219)로 문의하면 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영덕군
Yeongdeok-Gun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 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사별국면 체육회, 선수단 발대식



상주시 사별국면 체육회에서는 지난 19일 체육회 임원, 선수, 기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상주시민체육대회 사별국면 선수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대회에 참가하는 사별국면 선수단이 경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종목별 연습을 통해 경기 규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구시 군부대 통합 이천 퍼포먼스를 함께 진행했고 이날 행사에 참여한 모두가 군부대 유치를 기원하며 단합의 뜻을 모았다.

박윤호 체육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선수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청송, 안전한 통학 환경 만들기



청송군은 지난 20일 '아이먼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군을 비롯해 경찰서, 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어머니교통봉사대, 의용소방대, 진보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8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이용해 아이들을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문화 확산과 교통법규 준수 등을 홍보했다.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각급 단체들과 협력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의성군청 男 컬링팀, 태극마크 달았다

2025 토리노 동계 U대회 참가

의성군은 의성군청 남자 컬링팀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25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컬링 대표 선발전에서 관동대를 제치고 컬링 대표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스킵 이재범, 서드 김효준, 세컨 표정민, 리드 김은빈, 피스 김진훈, 지도자 이동건으로 팀을 이뤄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치러진 경기에서 예선 1승 1패로 결선에 진출, 관동대를 1차전에서 6대 2로, 2차전에서 7대 2로 승리해 컬링 대표로 선발됐다.

이번에 컬링 대표로 선발된 팀은 '2025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

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선수들은 "지난 8월 일본 해외 전지훈련이 이번 경기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고 이러한 기회를 주신 김주수 군수님께 감사드리며 내년엔 있을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 및 하얼빈동계아시아인계임을 잘 준비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수 군수는 "2024-2025 남자 컬링 국가대표 자격을 쟁취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2025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컬링 대표로 선발된 것에 대해 크게 축하하며 국제대회를 잘 준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문경관광진흥공공,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힘'

안동시설관리공공 업무협약 체결... 안전·관광·행정 등 협력 도모

문경관광진흥공공단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김천시시설관리공공단에 이어 지난 19일 안동시시설관리공공단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동시시설관리공공단에서 진행됐으며 두 기관이 함께 경북 지역 경제 발전과 각 농·특산물 판매·홍

보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에 뜻이 모아졌다.

신필균 이사장은 "이재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들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 관광,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안동 옥동자율방재단, 환경정화 봉사 '훈훈'



안동시 옥동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22일 낙동강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오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앞두고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옥수교 인근 낙동강 둔치에 버려진 빈 병, 비닐, 플라스틱 등 생활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전날 집중호우로 강변

에 쌓인 부유물까지 말끔히 정리하며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섰다.

고주희 동장은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옥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방재단원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을 부탁드린다"라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오영수 기자oms727@nate.com

의성 정책연구모임, 지역 발전 위한 '첫걸음'



의성군은 지난 20일 '2024년 의성군 정책연구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현안 아이디어 도출과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32명의 정책연구모임을 구성했으며 오는 2025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연구모임은 관광, 인구, 농업, 안전, 시설관리 등 다양한 주제에 군의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각적

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각 팀에서 제출한 최종 연구보고서는 정책 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각종 정책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군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 의성군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동 정

경북수학문화관 건립 현장 방문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24일 오전 11시 포항시에 있는 경북수학문화관 건립 현장(舊 경북과학교등학교 부지)을 방문한다.

황촌 상권활력소 준공식 참석



주낙영 경주시장은 24일 오후 3시 원효로 180에서 열리는 황촌 상권활력소 준공식에 참석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MOU



박남서 영주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다.

미술·출판작가 대통령전 오프닝



최기문 영천시장은 24일 오후 5시 예술창작 스튜디오에서 개최되는 영천미술인 및 출판작가 대통령전 오프닝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재산면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



박현국 봉화군수는 24일 오전 10시 재산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재산면 찾아가는 열린 군수실에 참석해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경, 문화관광해설사 진로체험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는 '9월 가족진로체험'으로 지난 21일 문경시 가을 일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진로체험을 진행했다.

9월 가족진로체험은 '문경의 보물찾기 1탄'으로 선유동구곡, 운강이강년기념관, 잉카마야박물관, 철로자전거(구랑리역)를 문화관광해설사 체험을 통해 문경을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선유동구곡에서는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봉사자들이 진행하는 미션으로 유익한 시간을 만들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Large banner for 'Chungjae' (忠齋) 34th event, featuring a schedule of activities like 'Eating Market', 'Tea Ceremony', and 'Cultural Experience' on October 5th at Cheongsongdae Jandi Plaza.



영천시는 지난 21일 지역 내 사업주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과 권의 보호를 위한 근로권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등에서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직접 참가 신청을 통해 참여했으며 △청소년 고용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림노동법률사무소의 이상영 공인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의 보호를 위해 사업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사업주들에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기문 시장은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sy9220@hanmail.net

상주보건소, 식품위생 간담회 개최



상주보건소는 지난 20일 식품위생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식품관련 시정 논의와 더불어 상주시 발전을 위한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및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부대 이전사업 취지와 현황, 향후 계획, 군부대가 유치될 경우 정주 및 유동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품위생 단체와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동참과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오는 10월 4일부터 3일 동안 개최되는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의 홍보를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굿가이 연상되는 '상주모자'를 전시, 식당 등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상주시의 대표축제인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을 홍보하며 축제분위기 조성으로 외식업체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르고자 한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고령 송예운 가족 "책 읽는 즐거움 널리 알려요"

2024 경BOOK페스티벌
다독가족 시상 '우수상'



지난 21일 경북도서관에서 개최된 '2024 경BOOK페스티벌-다독가족 시상'에서 다산도서관 회원인 송예운 어린이 가족이 우수상(경북도 도시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아이가 행복한 책 읽는 경북'이란 주제로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활동에 뛰어난 기여를 한 가족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수상하는 자리로 도내 공공도서관에서 추천받은 28가족이 선정됐다.

고령군 다산도서관에서는 송예운 가족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대출통계를 기준으로 총 364권을 대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송예운 어린이 가족은 "우리 고령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서 독서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자주 이용을 하다보니 경book페스티벌 다독가족

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까지 하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전했다. 다산도서관 관계자는 "2024 경BOOK페스티벌에서 고령군의 가족이 다독가족 우수상을 수상해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 이용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의성, 전남 화순과 고향사랑 상호기부 '훈훈'

의성군 안전건설과와 전남 화순군 홍보소통담당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발전을 위한 공직자 고향사랑 기부금 상호기부를 2년째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의성군 직원이 화순군을 방문했으나 올해는 화순군 직원 10여명이 의성군을 방문해 두 지역 간 상호협력의 뜻을 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기로 했다.

두 부서장은 각 지자체 서울사무소 파견 근무 시절부터 유대 관계를 맺어 온 터라 양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기부에 직원 30여명이 함께 뜻을 모아 2년째 참여했다.

김상철 안전건설과장은 "화순에서 의성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지역 간 상호기부를 위해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성주, 심산 김창숙 선생 업적·정신 기리며



성주군은 지난 21일 제13회 심산 김창숙 선생 숭모제를 개최했다.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조선의 마지막 선비 심산 김창숙 선생의 숭모제는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자 전국 각지 유림 및 출향인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숭모제는 1부 숭모학술대회와

2부 숭모작헌례로 나눠 진행됐으며 숭모학술대회에서는 정우락 경북대 교수의 '심산 김창숙 선생의 연구의 현단계'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심산 김창숙 선생의 사적을 재조명하고 애국 애족 정신과 뜻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청송署, 뱀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 '팔 걷어'



청송경찰서는 '2024 세계유교문화축전 청송경원 꽃길음악회'에서 청송군민을 대상으로 뱀페이크(허위성적영상물 제작·유포)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청송군민을 대상으로 뱀페이크 처벌 조항 및 악용사례를 안내하고 뱀페이크 성범죄 관련 범

죄 대처방법을 담은 전단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문용호 서장은 "청송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도 뱀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인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안동경찰서, 3차 치안성과 보고회



안동경찰서는 23일 안동경찰서 중회의실에서 서장, 각 과장, 계·팀장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3차 치안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10월말 치안성과 평가에 따른 치안 정책 추진을 위해 △치안성과 추진 실적 점검 △치안 고객 만족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동킴보드(이륜차 등) 교통사고 예방, 지명수배자 검거, 사건·사고 처리 시 민원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희석 서장은 "치안성과 미달성 지표는 구체적으로 매주 점검해 지속 관리하고 치안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안동경찰 모두 적극 노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청도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청도교육지원청은 23일 청도군청, 청도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초등학교 3개교, 학원 3개원의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6대이다.

점검반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시균 교육장은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artmong0@naver.com

MY UNIVERSE GYEONGSAN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무엇보다 시민 중심 행복경산

'ICT허브도시 경산'

밤낮 없이 온종일 경주 만끽

2024 제51회

신라문화제

28·29일 예술제, 10월 11~13일 축제 이원화 운영
개막식 장소 월정교→ '대릉원' 변경 안전까지 특별
멀티미디어쇼 결합한 신라복판타지 패션쇼 '첫 선'
달빛난장 QR 주문·결제 시스템 시범운영 '편의 UP'



확 달라진 구성으로 APEC 성공 개최까지 견인

경주의 대표 명품 문화예술축제인 신라문화제가 지난해와 확 달라진 내용으로 돌아왔다. 올해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축하하고 내년 성공 개최 기원을 담아 어느 해보다 뜻깊은 행사로 구성해 축제의 품격을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에는 안전상의 문제를 개막식 장소를 월정교에서 대릉원으로 변경했으며 금관총 주변에 푸드트럭존을 신설하고 스마트 QR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봉황대 법장사 뒤편에 ESG 존을 마련해 친환경 체험 공간과 반려견 동반 구역을 새롭게 준비했다.

먼저 신라예술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주제공연 및 미술, 사진전시, 체험행사 등의 콘텐츠로 경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어 신라문화제(축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신라복판타지 패션쇼, 실크로드 페스타, 화랑합합 페스타, 달빛난장 등으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를 선사한다.

지역 상권과 동반 성장하는 상생형 축제로 거듭

신라문화제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감성 낭만 야시장인 '달빛난장'이 봉황대 광장과 금관총 일원 등에서 진행된다. 판매 공간은 총 3개 구역, 41개 규모로 진행된다.

감성판매존은 나무부스와 파티라이트를 활용한 공간으로 모던판매존은 네온을 활용한 공간으로 꾸러진다. 여기에 올해는 금관총 일원에 푸드트럭존을 신설해 스마트 QR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떡볶이, 어묵 등 간단한 요깃거리가 가능한 분식류부터 부대찌개, 제육볶음 등 입맛을 자극할 식재료, 케밥과 양꼬치 등 글로벌한 먹거리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취식공간도 총 3개 구역, 100개 규모로 마련했다. 차도 위 노란색 파라솔 공간인 레트로가맥존, 나무팔레트와 파티라이트 공간인 감성피크닉존, 캠핑테이블과 LED 공간인 신라라운지존은 축제를 즐기러 온 방문객이 축제장에 오래 머무르며 소비할 수 있게 준비했다.



달빛난장 마임과 팝핀

슈퍼모델 100인의 화려한 신라복 패션쇼

올해 신라문화제 개막식은 대릉원에서 개최된다. 이는 지난 2년간 월정교 수상 객석에서 진행했던 '화백제전'의 하천 지반 등 안정성 문제 우려에 따른 조치다. 시는 화백제전을 대신해 신라복판타지 패션쇼를 선보인다.

패션쇼는 신라 스토리를 담은 슈퍼모델 100인의 신라복쇼와 함께 미디어아트, 라이트쇼, 드론 등을 결합한 멀티미디어쇼로 진행된다. 쇼는 주요 내빈의 신라 상징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신라의 태동을 상징하는 박혁거세, 강한 국력의 진흥왕, 한반도 최초의 여성 군주인 선덕여왕, 김유신 생애, 문무왕&APEC 등의 세부 내용으로 펼쳐진다.

특히 황리단길을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릉원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봉황대로 빠져나가게 해 '황리단길-대릉원-중심상가'를 잇는 새로운 축제관광 벨트를 만들어 낸다는 게 경주시의 올해 전략이다.

신라문화제를 이끄는 새로운 힘! 시민축제단 운영

올해 초 공개모집을 통해 축제 SNS홍보단(시민서포터즈) 207명, 실크로드 페스타(시민프로듀서) 85명, 친환경 그린리더(화랑원화단) 48명을 구성했다. SNS홍보단인 시민서포터즈는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신라문화제와 시정에 관한 홍보활동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실크로드페스타 시민프로듀서는 생활문화, 체험예술, 마을축제로 팀을 나눠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축제 기간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다. 친환경 그린리더 화랑원화단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제 기간 친환경 체험·전시뿐만 아니라 축제장 플로깅 활동을 선보인다.

지역 예술인의 화합 한마당 '신라예술제'

신라예술제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경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개최된다. 한국예총 경주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7개 예술협회가 힘을 합쳐 수준 높은 경주예술을 선보이는 축제다.

오는 28일 오후 7시 열리는 개막식은 일본 오이타현의 문화교류 공연을 시작으로 드론라이트쇼와 주제공연 '신라의 빛'이 차례로 펼쳐진다. 드론라이트쇼와 함께 하늘에 금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시민 마음에 희망의 빛을 띄운다. 체험 프로그램은 28일부터 29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경주예술의전당 분수광장에서 열린다. 한국예총 경주지회 7개협회의 다양한 체험은 물론 플라멩코, 지역명인, 전통놀이 체험, 예술피아노 등의 20여개 체험이 분수광장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올해 신라문화제는 유례없는 무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APEC 정상회의의 유치에 끝까지 성원을 해준 모든 분들께 문화·예술로 보답하고자 수준 높은 콘텐츠로 준비했다"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9·10월에 신라문화제에 반드시 오셔서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가득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2023년 화랑무도회 공연

MZ 취향저격 '화랑합합&실크로드 페스타'

실크로드페스타는 해외 2팀을 포함한 전문거리 예술팀 총 30팀이 70회 정도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봉황대 광장을 비롯해 공연 구역을 총 7곳으로 마련해 광장을 거닐며 공중극, 서커스, 마임, 마술,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에는 봉황대 법장사 뒤편에 ESG존을 마련해 친환경 체험 공간과 반려견 동반 구역을 신설했다. 친환경 체험공간인 '그린어스 존'은 문정현 뒤 잔디밭에 마련돼 페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체험부터 멸종위기 동물을 캐릭터로 한 에코백 제작까지 친환경을 소재로 재미를 더한 체험이 가능하다. 또 반려견 동반 구역은 그린어스 존 옆에서 반려견 TV를 관람하고 미로 체험을 하는 등 색다른 즐길거리로 채워진다.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화랑합합페스타는 요즘 합합전에서 가장 핫한 출연진으로 섭외됐다. 출연진은 비와이, 비오, 자이언티 등 8팀이다. 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 관심과 인기가 폭발적이다.



실크로드페스타 중 폴로세움

칼럼

쿠르스크 악몽의 전차전②(上)

임용한
KJ인문경영연구원 대표



소련이나 독일이나 합리적 지휘관들은 독일군이 쿠르스크를 점령한다고 해도 모스크바로 달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독재자가 아니라고 해도 독일 기갑부대 앞에 특별한 방어지형이 없는 평원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길이면 편안할 수는 없다. 지난해 프리고진과 바그너 반란군이 모스크바 행진을 시도했던 루트가 바로 이 길이다.

스탈린은 쿠르스크 돌출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게 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이 결정에 힘을 보태었다. 공산주의자이며 파시즘을 혐오했던 몇몇 독일 엘리트들이 자발적으로 압호명 루시린(루돌프 뢰슬러)을 수장으로 하는 스파이그룹을 조직하고 소련에 정보를 제공했다. 영국의 필비 5인방처럼 이들은 군부의 작전, 보급 등 다양한 부분에 포진해서 영양가 있는 정보를 모았다. 그중이 쿠르스크 공격 계획이었다.

쿠르스크 공격은 대치국면이 되면서 이미 실패한 것이었다. 스탈린의 우려로 휴지기에 소련은 이 돌출부를 요새화하기 시작했다. 100만의 대군과 3000대가 넘는 전차를 수용할 참호와 전차호가 개설되고 철조망, 지뢰, 기관총, 십자화망으로 보호하는 다중방어선이 설치됐다. 루시린의 첩보는 5월, 독일군에게 작전 계획서가 보급되기도 전에 소련군 사령부에 전달됐다. 소련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방어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독일군은 항공정찰로 쿠르스크가 요새화돼 가는 과정을 보고 있었다. 히틀러에게 아부하거나 지극히 머리가 이상한 지휘관을 빼고 만슈타인, 구데리안, 발터 모델, 호프, 독일의 전설적인 지휘관들이 모두 공격에 반대했다. 그러나 용감하게 히틀러에게 도전할 지휘관은 많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지휘관은 아예 없었다. 그저 제안을 하는 정도가 최선이었다. 그나마 한 번 제안을 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입을 다물었다.

히틀러는 고집을 꺾지 않았지만 본인도 속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스탈린그라드 이후로 히틀러는 군부에 지휘권을 넘겨 주지도 않았지만 결단력이 흔들렸다. 종합적 분석력과 판단력에 스스로도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된 그는 한두 가지 명분에 집착했다. 이번 경우는 양보다 질에 대한 확신이었다. 전차생산 책임자가 된 구데리안이 쿠르스크 공격에 반대하면서 티거와 판터는 아직 미완성품이라고 혹평하자 히틀러는 충분한 전차를 확보하기 위해 공격을 연기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압호명 시타벨이라고 명명된 쿠르스크 공격은 4월에서 5월로 최종적으로는 7월로 연기됐다. 이 건 최악의 결정이었다. 그 사이에 소련군의 병력은 보강되고 쿠르스크 돌출부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해갔다.

◇ 티거, 불멸의 전차

영국 보방단에는 세계의 명전차를 전시하는 전차 박물관이 있다. 이 박물관 최고의 소장품이 티거이다. 살아서 움직이는 세계 유일의 티거 전차로 1년에 한 번 이 전차가 기동하는 날은 축제의 날이 된다. 이 박물관에 특별 전시실이 딱 2개 있는데 하나가 영국의 자랑 세계 최초의 전차라는 MK1 전차실과 티거실이다.

당시 제법 강력한 중전차도 20~30t이던 시기에 60t에 달하는 이 괴물은 미군 셔먼탱크의 약한 전차포는 바로 앞에서도 튕겨내고 500m 밖에서는 어떤 전차포도 막아낼 수 있는 120mm 전면장갑과 사거리 2km에서도 어떤 강력한 전차 장갑도 파괴할 수 있는 전설적인 대전차포였던 88mm 포를 주포로 장착하고 있었다.

티거의 약점이 느린 속도라는 평이 있는데 제원상의 속도는 결코 느리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평소에는 느리게 움직여야 했고 티거의 중량을 버틸낼 도로와 교량이 부족해서 기동에 제약이 많았다.

판터는 티거보다는 가벼웠지만 역시 중전차였으며 경사장갑을 채택하고 역시 티거보다 경쾌한 기동으로 전술적 가용력은 티거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히틀러의 구상은 기갑전력을 집중하고 무적의 신형전차를 앞세워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서 전선을 통째로 붕괴시킨다는 책기작전이었다. 소위 전격전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T-34는 출현 당시에는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적인 전차였다. 경사장갑을 채택해서 방호력을 높였고 서스펜션을 도입해서 놀라운 속도와 기동력을 보였다. 간결한 설계로 생산효율을 극대화했다.

장갑과 속도 외에 편의장비, 승무원의 안전에는 소홀했던 것이 단점이었지만 소련은 승무원의 수를 기본 5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전차의 성능 조건으로 기동력을 제일로 꼽던 독일의 전차병들이 T-34에 놀라고 찬사를 보냈던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무게는 26.5t, 주포인 76mm 포는 티거 이전까지는 어떤 전차도 파괴할 수 있었다.

(2587호에 계속)
뉴스1

독자기고

자전거도 '차' 교통법규 준수해야

이근항
청도경찰서 중앙파출소



정부와 지자체가 펼친 자전거 보급 운동으로 자전거가 건강한 삶 추구 조력 기구로 각광받으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국적으로 자전거 이용 인구는 지난해 기준 134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자전거 사고 또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5633건, 2020년 5667건, 2021년 5509건, 2022년 5393건, 2023년 5146건이며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

한 사망자는 2019년 79명, 2020년 83명, 2021년 70명, 2022년 91명, 2023년 64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의 '지사율'도 함께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가 '차'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교통법규와 신호를 잘 지키지만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역주행, 신호위반은 물론 심지어 음주 운전까지 버젓이 하고 있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신호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중앙선 침범금지,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전거도로를 주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차량 통행할 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부과할 수

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자전거 음주 운전 단속 개정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3만원, 음주 운전을 거부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의 불가피한 행정조치로 보인다.

또한 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 차량에 주의하며 보도 통행금지,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동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설

배추 한 포기 2만원 밥상 '김치 플레이션' 비상

추석 연휴 직후까지 이어진 폭염에 채소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마트에선 배춧값이 2만원 선을 넘어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0일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8989원으로 1년 전 가격이 6193원인 것과 비교하면 45.2% 상승했다. 지난 19일에는 9337원을 기록하면서 9000원 선을 넘기도 했다.

소매 가격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전국 주요 마트, 시장의 평균 가격이다. 대구 칠성 시장에서는 이미 가격이 1만 5000원을 기록했고 서울 북소리 시장은 1만 3700원, 경동시장도 1만 3300원을 보였다.

배추 가격은 여름이 시작되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때 배추 가격이 2만 2000원으로 표시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같은 배추 가격의 상승은 지난 여름 장마 기간 이후 폭염이 길게 이어지면서 배추의 생육 지연, 상품성 하락 등이 나타난 원인이다.

배추는 생육 적정온도가 18~20도 수준인 대표적인 저온성 채소로 주로 강원도 '고랭지'에서 생산하는데 강원 지역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작황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여름배추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5.3%, 평년보다 4.9% 축소되면서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6.6%, 평년보다 8.5% 각각 줄어든 점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 가을배추 역시 재배 의향면적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을 출하 배추의 시세가 낮아 일부 지역에서는 배추 대신 콩으로 작목 전환을 하는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오는 10월 가을배추 물량 출하가 이어지기 전까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기상 여건과 대량 수요처의 저장배추 소진율에 따라 가격 변동이 가능하다"면서도 "오는 10월 가격도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매일 농산물 수급 안정 회의를 열고 가격 동향을 점검 중이다. 농산물 가격은 변수가 많아 변동 폭을 예단하기 어렵다. 폭우와 폭염에 이어 예년처럼 태풍이 발생하면 농산물 수급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가격 관리를 낙관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변수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일상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기후재난은 이제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기후위기를 이미 닦친 현실로 받아들이고 장·단기적으로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 초에도 과일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해 소비자들은 사과 하나 사먹기 힘든 지경이었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제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밤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2024 제51회 신라문화제

SILLA CULTURAL FESTIVAL

2025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 기원



10.11.FRI — 13.SUN

경주 봉황대 및 대릉원